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내일 '점프볼'

6강 사령탑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펼칠것다"

2009~2010 KCC 프로농구가 7일로 정규리그를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6강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를 시작한다.

울산 모비스는 7일 2년 연속 우승을 확정지으며 지난 다섯 시즌 동안 네 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일궜다.

부산 KT는 울산과 동률을 이뤘지만 상대전 점수득실차에 뒤져 아쉽게 2위에 그쳤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플레이오프에서는 정규리그 3위 전주 KCC와 6위 서울 삼성, 4위 창원 LG와 5위 원주 동부가 먼저 맞붙는다.

KCC와 삼성의 대결은 지난 시즌 챔피언전 결승전과 맞붙은 2008~2009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삼성과 7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우승을 차지했었다.

8일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린 KBL센터, 리턴매치를 치르게 된 KCC와 삼성 사이에서는 도발도 나왔지만 4위 LG와 5위 동부는 덕담을 나눠 대조를 이뤘다.

하재 KCC 감독은 안준호 삼성 감독을 겨냥해 "삼성이 예상을 뒤엎고 6위로 떨어지면서 우리를 만나 불안해서 말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도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의지를 담은 사자성어를 준비해줬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안 감독이 없다고 답한 데 대한 도발성 논평이었다.

안 감독은 "같은 강씨끼리 좋은 경기를 해보자"고 말했다. 강동희 감독은 "LG는 4위이지만 사실상 1위나 2위라고 해도 될 것 같다"라며 "플레이오프에서 훌륭한 감독님들을 모시고 가르침을 많이 받아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고 화답했다.

해결사의 기량 회복이나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공통이었다.

하재 감독은 "하승진이 부상에서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는 높이 나 다른 모든 면에서 좋아질 것으로 본다"며 "지난 시즌에 이었던 것(우승)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안 감독은 "KCC는 하승진, 테렌스 레더, 아이반 존슨으로 이어지는 높이가 좋지만 올해는 우리에게 이승준이 있어 지난 시즌들보다는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강동희 감독은 "김주성이 부상을 치료하고 있지만 꼭 나와야 할 선수이고 본인도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이들 감독의 호전적 발언과 달리 강을 준 LG 감독과 강동희 동부 감독은 차분히 웃었다.

안 감독은 "우리는 선수들이 8시즌 동안 플레이오프를 해왔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게 우리 무기"라고 말했다.



짜릿한 '질주 본능' 8일(한국시각) 미국 앨버튼 애들랜트 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린 나스카 스프린트 컵 시리즈에서 선두 그룹의 차들이 질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도출신 '당구얼짱' 차유람 세계 여자 9볼 오픈 우승

완도출신의 '당구 얼짱' 차유람(23)이 2010 암웨이배 세계 여자 9볼 오픈에서 '작은마녀' 김가영(27)을 꺾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대한당구연맹은 8일 "차유람이 전날 대만에서 끝난 대회 결승전에서 김가영에게 11-5로 승리해 우승했다"고 밝혔다.

차유람은 결승전에서 WPBA(미여자프로포켓볼) 랭킹 1위인 김가영을 상대로 런아웃(초구 브레이크 이후 공격 실패 없이 세트를 따내는 것)으로 1세트를 따내며 산뜻한 출발을 했다.

하지만 김가영이 무서운 기세로 추격을

시작하면서 차유람은 내리 2,3,4세트를 내주며 고전했다.

승부의 분수령은 5세트였다. 김가영의 실수를 틈타 5세트를 쟁긴 차유람은 6~10세트를 모두 휩쓸면서 7-3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역전에 성공한 차유람은 이후 김가영에게 두 세트(11, 15세트)를 내줬지만 세 세트(12, 13, 14세트)를 내리 챙기며 승기를 잡았다.

차유람은 마지막 16세트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9번 볼을 포켓에 넣으면서 세트스코어 11-5로 승리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규리그 MVP 함지훈·신인왕 박성진 영예

각각 문태영·허일영 제쳐...부산 KT 전장진 '감독상'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의 간판 센터 함지훈(26.198cm)이 2009~2010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KBL은 8일 MVP 기자회견 투표 결과, 함지훈이 유호 투표수 80표 가운데 72표를 얻어 6표에 그친 문태영(LG)을 제치고 MVP가 됐다고 발표했다.

프로 3년차인 함지훈은 이번 시즌 52경기에서 평균 35분37초를 뛰며 14.8점(13위), 6.9리바운드(10위), 4어시스트(9위)를 기록하며 팀의 2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에 일등공신 역할을 해냈다.

인천 전자랜드의 가드 박성진(24.182cm)은 신인 선수상을 받았다. 유호투표수 80표 가운데 73표를 얻어 5표의 허일영(오리온스)을 앞섰다.

가야고와 중앙대를 거쳐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한



<함지훈>

<박성진>

박성진은 54경기에서 모두 나와 경기당 8점, 3.6어시스트, 2리바운드의 성적을 냈다.

감독상 수상자로는 부산 KT의 전장진 감독이 53표를 얻어 26표의 유재학 모비스 감독을 제쳤다. 감독상을 네 번 받은 것은 전장진 감독이 최초다.

또 외국인 선수상은 제스퍼 존슨(KT)이 받았고 베스트 5에는 양동근, 전태풍(KCC), 문태영, 함지훈, 하승진(KCC)이

구분	소속	수상자	득표
최우수선수상	모비스	함지훈	72
신인선수상	전자랜드	박성진	73
감독상	KT	전장진	53
우수후보선수상	모비스	박종천	32
기량발전상	모비스	박종천	27
	모비스	양동근	68
가드	KCC	전태풍	58
베스트 5	LG	문태영	58
포워드	모비스	함지훈	59
센터	KCC	하승진	50
외국선수상	KT	제스퍼존슨	55

문태영, 함지훈, 하승진(KCC)이 뽑혔다. 모비스 박종천이 기량발전상과 우수후보선수상을 휩쓸었고 이성구 기량상에는 윤호영(동부), 브라이언 던스톤(모비스)이 수상자가 됐다.

수비 5결로는 이정석(삼성), 황진원(KT&G), 김주성(동부), 이현호(전자랜드), 던스톤이 뽑혔고 KT가 스포츠 마케팅상을 받았다.

기아차, 내달 4일까지 '월드컵 마스코트 어린이' 모집

기아자동차는 월드컵 홍보 프로그램인 '기아 마스코트 프렌드'에 참가할 어린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기아 마스코트 프렌드'는 기아차가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후원사로 선정하는 공식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전세계에서 선발된 어린이들이 경기시작 전 남아공 월드컵 마스코트인 자쿠미와 함께 경기장에 입장해 퍼포먼스를 펼칠

고 경기 관람의 기회도 갖는다.

국내에 거주하는 8~14세 어린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기아 월드컵 마이크로 사이트(<http://fifaworldcup.kia.co.kr>)를 통해 오는 4월 4일까지 신청하는 공식 어린이 마스코트 프렌드로 선정된 어린이와 보호자 1인에게 왕복항공권, 현지 체재비, 경기 관람권 등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9일(화)

- ▲프로야구 시범경기(LG : SK)(12 : 50·SBS스포츠) <롯데 : 삼성>(12 : 55·MBC ESPN)
- ▲AFC 챔피언스리그(멜버른 : 성남)(17 : 20·SBS스포츠) <전북 : 가시마>(19 : 00·SBS스포츠)
- ▲09/10 V리그(KEPCO45 : 현대캐피탈)(18 : 40·KBS n스포츠)

특허청 등록 제 164803호

천기누설

운명! 사주!

강애산 원장 직접운영강점 **일인당 1만원**

궁합 2만원 택일 5만원(결혼,출산,이사)

자습매대로 물려주는 24K 만사형통 황금황제부적 습서!

소원성취부, 삼재예방부, 안전부 (특별판매가 499,000원)

* 각 가정에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도 식구 모두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천기누설 첩서사주카페 **하룻밤 무료!**

예약상담 (062)222-9670 010-2663-9766 YMCA 뒷골목 흥남갈비 2층 **광주은행 광장점 006-121-747071**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3.02.(화) ~ 2010.03.20.(토) / (총 60시간강의)
-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서측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지	반호시 공인회계사, 경영학사, 건축사, 건설기술자격(건축사, 토목공학사, 측량사, 토목공학사, 토목공학사, 토목공학사, 토목공학사)
학사사 학력지	4년제 대학 학사(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졸업장(또는 학위)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지	국가, 지방,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문의/전화 www.gred.kr

- 원 장이명규 교수 062-670-2421
- 부원장 강동욱 062-233-3119
- 사무국 김병철 062-233-3119

"저희 통진엔지니어링(주)는 기초가 튼튼한 회사입니다."

침하된 구조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념!!

파워필 옵티그린 공법은 국내에서 개발한 저탄소 녹색산업 친환경 공법

2 옵티그린의 적용분야 (특허출원번호 10-2009-0063696호)

- ▶ 지하수 폐공 충전: 폐광산 및 공동구 충전
- ▶ 조경분야(보습제): 옥상조경 초인공 경량토양, 화훼, 농업용 대서토양 골프장 잔디 통기성 뿌리 활착강화
- ▶ 산업분야(공동구 충전): 오일탱크, 폐쇄된 지하 매설관(무굴착)

1 파워필공법의 적용분야 (특허출원번호 10-2009-0090669호, 10-2009-0076623호)

- ▶ 건축분야(지반보강 및 복원): 주택, 상가, 공장, 빌딩, 주차장 등
- ▶ 토목분야(깊은기초 지반보강 및 차수): 방조제, 제방, 댐, 운하제방, 고속도로, 공항, 항만, 철도, 교량, 하수암거 등
- ▶ 산업분야(연약지반 보강, 복원 및 차수): 석유화학 플랜트, 대형탱크, 사일로, 조성소

3 통진엔지니어링(주)하는 일

- ▶ 시설물 유지관리업, 토공사업, 정밀안전점검, 땅이말뚝기초

통진엔지니어링(주)
www.tongjin96.co.kr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894-5번지

대리점 및 지사모집
T. 062-571-3001~2
HP 011-604-0287

사원모집

- 5톤 트럭 운전가능자(남)
- 건설 관련 유경험자(여 1명)